

김성민 지음/『분석심리학 기독교신비주의』

김성민 교수의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신비주의』를 읽고

김 승 철*

김성민 교수(이하 저자로 표기함)의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신비주의』(학지사, 2012년 ; 총 398페이지)는 오랫동안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신학을 연구해 온 필자의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결실이다. 한국융연구원의 연구총서의 첫 권으로서 출판된 이 책으로 필자는 <한국기독교학회 제6회 소망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미 『융의 심리학과 종교』,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등을 상재한 바 있는 저자는 신학자로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목회자로서 신자들을 돌보는 목회활동의 분주한 와중에도,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수련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융학파분석가로서도 활동하는 놀라운 근면성과 학구적 열정의 소유자이다. 한국융연구원의 이부영 박사 역시 그 점을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무의식에 대한 탐구라는 분석심리학적 주제를 기독교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신비주의와 연관해서 다루는 본서는, 저자가 상징을 거론하는 맥락에서 “한번 자리잡은 새로운 수로 canal는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한다”(133 ; 숫자는 본서의 페이지수를 가리킨다)고 표현하였던 바를 문구적으로 인용해서 다시 쓴다면, 대단히 매끄럽고 평이한 문체를 구사하면서 독자들을 분석심리학의 세계로, 아니 독자 스스로의 무의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수로’이다. 독자들은 이 책이 파놓은 ‘수로’를 따라서 자신들의 영혼의 내면으로 흘러 들어가 다시금 자신의 의식

의 세계로 흘러 나오게 되고, 것처럼 자신들의 영혼의 왕환(往還)운동을 가능케 해 주는 종교적 상징은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무의식에 있는 ‘정신적 에너지’로서의 ‘리비도’가 지니는 충동적 조야함을 순치(馴致)시켜서 리비도로부터의 ‘해방’을 가능케 해주는 ‘창조적 환상’(134)의 실체를 독자들은 알고 싶어지는 것이다. “상징은 본능의 리비도를 그와 유사한 상징적 대체물로 흐르게 하는 경사면”(143)을 제공해 주기에, 것처럼 ‘리비도를 흐르게 만드는 경사면’으로서의 ‘종교적 상징’을 찾아서 현대인들도 영적 순례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저자에게 크게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도 서른 살의 중반에 ‘어두운 숲속’에서 인생의 길을 잃었던 단테의 영혼이 베르질리우스와 베아트리체, 그리고 신학자 성 베르나르의 안내를 각각 받으면서 지옥으로부터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상승해 올라갔던 것처럼, 음습한 암흑 속에서 분출될 바를 알지 못해 끓어오르는 리비도를 밝디 밝은 광명의 세계, “태양과 수많은 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神曲』〈天國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상징은 과연 무엇인지, 독자들은 저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무의식의 세계로, 신비주의의 세계로, 혼의 정화와 성화의 여행을 하게 된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영혼마저 파멸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였던 성 프란체스코와 잔느-마리 드 귀용, 그리고 존 웨슬리에 대한 저자의 분석심리학적 독해는 그러한 혼의 순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평자에게 가장 관심이 되었던 부분도 이러한 ‘경사면’과 ‘수로’를 제공해주는 상징에 관한 저자의 설명이다. 모든 대극을 초월해서 ‘정신의 통합’(26)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신의 이미지라면, 그리고 그러한 신의 이미지가 상징으로 표현되고 상징은 언제나 해석된 의미에서의 상징이라면, 종교와 종교가 대립하고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21세기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정신의 통합’을 이루도록 해주는 상징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상징은 본래 “도자기나 금속의 조각으로 만든 신표(信標)나 부표”를 의미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후일 두 쪽을 맞추어 보아 과거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59). 본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는 발상에는, ‘하나’와 ‘둘’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고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나 그 정치사회학적 사정(射程)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단히 계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진술을 따라가면서 평자에게 떠 올랐던 것은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

인 바이츠제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1912~2007)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이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나에게서는 두개의 반원(半圓)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두 반원을 갖다 붙여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되도록 해야만 하며, 그리고 나서는 이 원을 여러차례 완전히 굴러다기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도 하나의 자연존재입니다. 자연은 인간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 이런 뜻으로는 자연과학이 정신과학의 한 가지 전제입니다. ... 다른 면으로는 자연과학도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 지고, 또 인간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산물들의 조건 아래 놓여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학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 이런 뜻으로는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의 한 전제입니다(『자연의 역사』 강성위 역, 삼성문화재단, 1975년, 14-15면).

바이츠제커가 말한 ‘두개의 반원’은 저자가 용의 이론에 의거해서 말하는 ‘둘로 나누어진 신표’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 ‘두개의 반원’이 하나로 합일되는 것은 그러나 일차원적인-평면적인-차원에서의 일은 아닐 것이다. ‘두개의 반원’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로하고 포함하는 순환적인 관계, 다시 비유로 말한다면, ‘피비우스의 띠’에 있어서의 내면과 표면과 같은 관계이다. 내면을 달리다 보면 어느 덧 표면에 이르게 되고, 표면은 다시금 내면으로 인도된다. 평자는 이 ‘두개의 반원’이 하나로 되는 그 메카니즘에서 기독교와 아시아의 종교들이 만나고, 기독교와 자연과학이 만나며, 이 두개의 만남이 보다 큰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읽고 싶어서 암중모색 중이다.

바이츠제커의 어투를 빌려서 말한다면, 기독교와 자연과학의 관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종교들은 기독교 보다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인의 신앙의 자기 이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시아의 종교가 해석학적 지평이 된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종교들은 아시아에 살면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수행하는 아시아의 신앙인에게는 ‘하나의 전제’가 되고, 그의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의 종교들은 아시아의 기독교 신앙인에게 이해된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기독교 신앙이 이번에는 그가 아시아의 종교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가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는 이러한 신

양의 사실을 하나로 통합해줄 수 있는 기독교적 상징은 무엇일까? 혹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만, 기독교와 아시아의 종교, 기독교와 자연 과학이라는 ‘두개의 반원’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을까?

저자가 기술하고 있듯이, 용의 ‘집단무의식’이나 ‘원형’은 자연의 세계에서 문화를 이루면서 생존해 온 인간의 무의식에 각인된 보편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원형’에는 자연과 인간의 만남의 태고적인 모습과 인간의 문화적 계승에 의한 그의 끊임없는 반복이 새겨져있다. 저자가 용에 의지해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삶에는 전형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인류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각인되어 전해지며”, “그것은 무의식에 남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40). 용이 지적하였듯이 <원형>은 이런 의미에서 동물학에서 말하는 ‘행동유형’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스스로를 타자와 구분하면서 독특한 개체라고 인식하는 것은 진화의 과정이 우리들의 뇌에 남겨놓은 하나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생물정보학자인 피에르 발디가 주장하듯이, 이 감정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정확한 경계에 의해서 정해진 독특한 개인이라는 감정이다. 우리들은 개개의 사람들이 특정한 감정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기본적으로는 타자나 동물, 혹은 컴퓨터와 같은 다른 정보전달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Pierre Baldi, *The Scattered Self: The End of Natural Evolution*, The MIT Press, 2001, p3). 현실적으로 개개의 입자(粒子)처럼 흩어져 있는 개개인이라는 의식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류의 발상도, 또한 ‘인간 클론’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나 두려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진화론적인 사실은 인류가 무의식의 차원에서 하나의 단일한 꿈을 꾸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 꿈 속에서 서로 만나 유영(遊泳)하는 존재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단일한 꿈을 꾸는 인류이지만, 그 인류의 무의식의 저류를 흐르는 ‘원형’은 “각각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며”(41),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종교, 종교와 과학의 대극을 넘어 통합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들이 대망하는 바는 “새로운 상징을 가지고 정신 에너지에 새로운 수로를 내줄 신비가”(158)일진대, 그

‘새로운 상징’은 무엇이며, 그러한 ‘새로운 상징’을 제시해 줄 ‘신비가’는 과연 누구일까?

김성민 교수의 오랜 사색과 고투를 통해서 결정화(結晶化)된 본서를 읽으면서 평자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해 보았다.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밖을 향해 두리번 거리기 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으로 침잠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의 글쓰기가 지닌 매력과 호소력에 인도되었기 때문일 것임에 틀림없다. 저자가 프랑스의 융 분석가 엘리 움베르트(E. Humbert)의 소설(所說)을 소개하면서 말하듯이, ‘정신의 통일을 이루려는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서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때 생기는 정감이나 충동을 객관화하여야 한다”(28). 평자의 이 조잡한 서평도 평자의 “무의식에서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때 생기는 정감이나 충동을 객관화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저자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평자의 즐거운 의무의 하나일 것이다.